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청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61회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도의회 의견 제출

충청북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제 261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고 기타 현안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요구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주민소환제도 및 주민감사청구 이해와 환경 관련 구도심 재생 및 녹지보존대책에 대한 직무연찬, 종합복지정보망 추진사업과 현안에 대한 간담회, 환경오염 자율점검업소인 진로 청원공장과 백곡천의 생태하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내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를 방문하였으며, 비회기 중에도



▲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주요현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회사무처 봄철 농촌 일손 돕기, 제36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전국국민생 활체육대축전 참관, 세종특별시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쳤다.

전체의원 간담회 · 꿈나무 정치체험



▲ 제261회 임시회 회기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요구안 등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 6월12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꿈나무정치체험에 참가한 충북도내 중학교 학생회장과 관계자들이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62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

● 회 기 : 2007. 7. 10. ~ 7. 20. (11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의안건
7. 10.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62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7. 7. 10. ~ 7. 20.(11일간) 2. 도정 및 교육정책 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5. 기타 안건 처리
7. 11. ~ 7. 15.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도, 교육청) ·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7. 16. ~ 7. 19.	● 본회의 휴회 ※예결특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도, 교육청)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7. 20. (11:00)	● 제2 본회의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 교육청) 2. 부의 안건 처리 3.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북도행정사무조사계획서 처리 · 오송역 및 오송신도시 예정지의 추진현황에 대한 현지 간담회 기타 현안 처리
교육사회위원회	·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7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2007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안 · 상임위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설문화위원회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의 예비 심사 ·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기타 현안 처리

개회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주신 박영웅 의원님과 민경환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특별도 건설과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제8대 도의회가 출범된 이후 우리 의원 모두가 도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온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우리 의회와 충청북도가 마치 갈등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지혜와 역

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던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하겠으며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은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은 농촌에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일손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태풍을 동반한 장마와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과 하절기 방역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오늘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존속기간이 도래한 한시기구·정원의 연장조와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과 부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함.
- 정원의 총수 2,649명 ⇒ 2,654명(5명 증원)을 현행대로 2,649명으로 함.
- 직급 조정 :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
- 한시기구 및 한시직급정원 존속기한 연장.
- 혁신담당관실(4급) : 2007. 6. 30. ⇒ 2008. 6. 30.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4급) : 2007. 6. 30. ⇒ 2009. 12. 31.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한시정원(5급2, 6급1, 7급1) : 2007. 6. 30. ⇒ 2008. 6. 30.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채택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에 고함하여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함.

【주요내용】

• 도시명칭 ⇒ 세종(世宗)
지난 2006년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世宗, Sejong)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성군인 세종대왕을 의미하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고,

세상(世)의 으뜸(宗)이라고 해석되어 그 뜻이 심오할 뿐만 아니라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표기가 쉬워 국제적으로도 쉽게 불릴 수 있어 행정중심도시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법적 지위 ⇒ 특별자치시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며, 기존 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의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찬성함.

• 법 시행일 : 2010. 7. 1.

현재까지 행정도시 건설 기본 개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이 2010년 법 시행을 전제로 수립되었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출범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0. 7. 1 일자 시행에 찬성.

• 관할구역 ⇒ 주민투표를 통해 희망지역에 한하여 편입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이나 형태보다는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충청북도내 청원군 부용면 8개리(27.42㎢)와 강내면 3개리(6.06㎢)는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함.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여성가족부(직전에는 노동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에 따른 후속조치임.

【주요내용】

-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함.
-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후생 복지사업 등으로 함.
- 도지사는 센터를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위탁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조례중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계약의 취소사유 구체적 명시.
-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개정.
-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 “체육청소년과장”을 “충청북도지사”로 개정.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WTO,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함.

• 농어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농어업인, 소비자의 책무를 정함.

- 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 농어업인은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

• 도는 농어업·농촌 지원의 기본원칙을 수립·추진함.

• 도내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농어업의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농업·농촌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기로 정함.

•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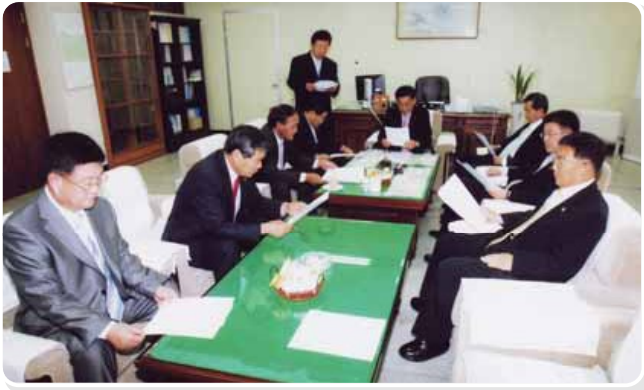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제외) : 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262회 정례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기로

간담회 ▶
6월 11일 제 261회
임시회 회기 변경안
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 안전심사
6월 11일 제262회
정례회 회기 및 의
사결정 협의안을 심
사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제26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처리를 위하여 당초 2007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2007년 6월 11일부터 18일까지로 하루 앞당겨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6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2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정 및 교육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부의된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본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채택



▲ 간담회 6월1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관련 도의회 의견제시 논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열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6월 11일에는 제1차 행정자치위

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다. 먼저, 회의에 앞서 청원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을 청취한 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칭·지위·관할구역·시행일 4가지 사항으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위는 정부직할,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정대로 하고 다만,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우리도의 경우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2개면 11개리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청원군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편입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다.

6월 13일에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기술직 및 기능직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 7명과 한시 기구인 혁신담당관실, 노근리사건실무 지원단 그리고,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결하였

다. 다만,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49명에서 2,654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진단을 통한 부서간 인력조정 등의 검토없이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 1월 8명, 4월 20명 증원에 이어 2개월여만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비대화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지방공무원 총정원 2,649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그 밖에 주요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관리자 대회 유치,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을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의 해소방안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비정규직의 권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당부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근거 마련

간담회 ▶
6월 12일 충청북도
교육청 성립전예산
에 대한 보고를 받
고 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2007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린 제261회 임시회기 중 의원발의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과 충청북도교육청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6월 1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미애의원의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광옥의원의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 개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후생복지 사업을 수행하며, 센터 운영을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운영 및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중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 중 “학습원의 유지관리 소홀히 하였을 때”를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구체화하였으며, 도지사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 조례안 심사
6월 12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예비 심사
를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심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오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61회 회기 기간중 처리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 등 당면 주요 업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6월 13일에는 WTO, 한미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경환의원의 9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민경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신순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정호성 농정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별로 충청북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담회 ▶
6월 11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
사 등 당면주요업무
와 의사일정을 협의
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6월 13일 제1차 산
업경제위원회를 개
최하고 충청북도 농
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

직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도정발전 모색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자문위원과의 직무연찬, 환경오염 자율점검업소 방문, 생태하천 실태 확인, 집행부와와의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환경분야에 대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도심지역 재생과 녹지보전 대책」을 주제로 환경분야 자문위원과의 직무연찬을 갖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열섬현상 해결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적절한 배수 관리 체계, 그린벨트지역 등에 대한 개발제한과 관련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같은 일명 「개발제한부담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는 업소

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오염물질 배출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고, 관련 시설물들을 견학하고 공장 내의 대기 및 수질 상태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였다.

한편, 멸종위기에 놓인 미호종개와 황금박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식지 관리 및 생태 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생태하천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6월 14일 열린 충북문화산업 육성전략 연구보고회에 참석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자원 발굴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도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

간담회 ▶

6월 12일 환경관련 구도심 재생 및 녹지보전대책을 주제로 위원 직무연찬을 하고 있다.



현지확인

6월 12일 환경오염 자율점검업소 (주)진로 청원공장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을 하고 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등 활발한 활동 전개



현지활동

6월 15일 댐 특위 위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관계관들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환)는 지난 6월 15일 간담회 개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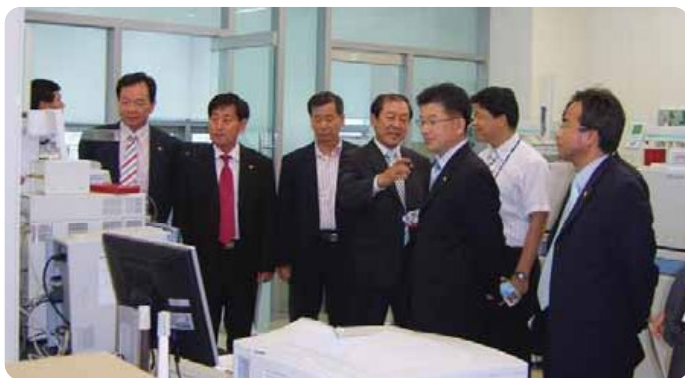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댐특위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의 특위 활동상황을 되돌아보고, 댐 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향후 활동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댐건설 정책과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원 확대,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 댐건설로 인한 규제 완화, 용담댐 하류의 홍수 시 피해대책, 대청댐 주변지역에 휴식공간 조성, 달천댐 건설 반대 및 수중보 건설 등을 요청 하였으며 또한 민경환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 확대와 지원금의 형평성 있는 산정·배분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사업본부장 김우구)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지원과 불편해소 등 논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활동 ▶

6월 15일 댐 특위 위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청북도의회 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댐 관련 주요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어린이 경제교육의 중요성



박영웅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하면 우리나라를 손꼽는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의 교육열은 이해가 간다. 허나 정작 교육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보다 나은 지속적인 삶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원인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인생의 척도라 대학입시에 필요한 과목이외에는 전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돈은 한번 잘못 운용하면 그 바닷속을 보이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처럼 보다 안정적인 미래 생활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경제교육! 어느날 한번에 베풀기기로 공부한다해서 경제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녹아든 교육만이 바람직한 소비생활과 경제관념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

으나 그중에 JA(Junior Achievement)나 점프스타트(JumpStart)와 같은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이 중심이며, 이들 기관들은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의 단계별 금융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마스터 카드의 경우 미국내 전체 고등학생들의 90%에 달하는 1,000만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 하는 등 일반 금융회사들도 청소년의 경제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와 은행이 협력하여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데 정규 교과중심으로 경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재무적 문제의 의사결정이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가치 판단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채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피해자 수가 180만명이며, 가

구당 빚이 평균 3,600만원에 이르러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경제인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금융교육행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각종 경제관련 언론사, 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이 어린이 금융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재정경제부도 “경제교육특별법”을 제정기로 하고 법안을 늦어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경제교육특별법이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공하는 리더의 7가지 조건



권광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개인이 아닌 일정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하겠다. 작게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시작하여 크게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리더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되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기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리더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패하는 리더를 많이 볼 수 있다. 실패하는 리더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공을 호언장담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운이 좌절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기 때문

에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경우이다. 반면, 성공하는 리더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고, 주어진 조직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아마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며 결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피드백 시켜야 한다.

둘째, 위기관리 능력이 리더의 으뜸가는 덕목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미래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도 같은 것이며,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에도 있고 경영의 방법,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

생되어지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고객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리더가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고객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 고객의 변화 등을 끊임없이 체크하여 목표를 수정해 나가야만 한다.

넷째, 변화와 혁신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머무는 리더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사회·고객의 환경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고정관념과 안주하고 싶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조직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리더의 목표와 비전을 조직원이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때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비전을 조직원이 공감하지 못하여 혼란이 발생할 때는 비전에 대한 리더의 의지와 조직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조직원에게 공감대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부하의 행동에 투시된 거울과도 같다 하겠다. 부하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리더 스스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써 부하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책과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실패사례까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7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리더가 있을까? 모두 갖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진정한 리더라면 우선 자신에 대한 자질과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부족분을 메우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덕목과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목표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의 덕목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성공이란 경영의 실적이나 결과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5분 자유발언의 효과 (3년 노력 민원해결)



송은섭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지난 2005년 12월 지역구를 순방하다가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양화마을과 지전마을을 찾았다.

노인회장, 이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홍수면부지에 어렵게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몇 년째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역을

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해 민원의 내용을 충청북도청 농정 담당부서 관계자를 통하여 협의하며 알아본 결과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구역 안에 있는 농지와 저수지 홍수면 부지는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며, WTO 협정문에 따른 지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본의원은 자료를 취합하여 2006년 2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 현실과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지사에게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자료와 연설문을 토대로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에 관계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그 후 지속적으로 농정당국과 협의하며 수차례 중앙정부에 제도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3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또다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지난 4월 농림부 소득정책과 김선영 과장 일행이 초평면 용정리 현지를 방문하여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 후 5월 17일 농림부로 부터 저수지 홍수면부지(지목:유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2007년도부터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3년간의 끈질긴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적으로 홍수면부지에 경작하는 농민들이 비

직불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도내에서도 2006년 기준으로 444농가 225ha에 대하여 직불금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되게 되어 어려운 농촌살림에 보탬을 주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어려운 민원을 내일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국회의원, 농림부, 충청북도 농정당국자, 진천군청 공무원 그리고 농심을 아끼시는 여러분의 노고로 이루어진 결실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4선의 지방의원(도·군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을 성취한 기쁨을 어려운 농촌현실속에 가슴 아파했던 전국의 홍수면부지 경작농가와 함께하고자 한다.

건강보감

비만치료를 위한 한방 차

소화가 안 되는 비만인, 몸이 부으면서 살찌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바로 한방 차이다. 한방 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오줌, 땀 등을 조절하므로 자주 마시면 몸 안의 불순물과 노폐물이 제거된다. 한방 차를 끓일 때는 불의 세기를 보면서 정성껏 달여야 한다. 적당량의 물을 붓고 강한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달인다. 한방 차를 먹는 방법은 하루에 3~5차례 물을 마시듯 수시로 마시면 좋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방 차를 먹는 사람은 다이어트의 천적인 꿀이나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보통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끓여 마실 수 있는 다이어트 한방 차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의인인 차 율무 60g에 물 400cc를 넣고 처음에는 강한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달여서 수시로 마신다. 보통 율무라 부르는 의인인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를 보하는 작용을 한다. 이뇨 작용이 있어 살이 빠지고 피부도 좋게 만들어 준다. 항균작용도 하고 입맛을 좋게 하므로 밤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다.

목동 차 목동 10g과 물 500cc를 넣고 끓여서 수시로 마신다. 목동은 임신 및 신장염으로 부종이 있는 사람과 급성 요도염

에 걸린 사람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대변을 잘 통하게 하여 전신의 기 순환을 일게 한다. 그러므로 출산 후 부종이 있으면서 살이 찌는 사람이 마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방기 차 방기 20g에 물 400cc를 넣고 끓여 수시로 마신다. 방기는 순환기, 소화기의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배설시키는 이뇨 작용이 강하다. 이와 같이 불순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기는 딱딱한 살이 아닌 물렁물렁한 물살이 찢어지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방기는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곽향 차 곽향 6g과 물 400cc를 넣고 끓여 수시로 마신다. 곽향은 기를 잘 통하게 하고 위의 작용을 도우며 두통을 치료한다. 나쁜 기를 없애고 기를 잘 소통시켜 전신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감기, 복통, 구토, 설사 등에 효능이 있다.

옥수수 수염 차 옥수수 수염 10g과 물 500cc를 넣고 강한 불에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은은한 불로 바뀌서 달인다. 단 처음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마셔보고 양을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 옥팔이라고 불리는 옥수수 수염은 완만한 이뇨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부종이 있는 비만한 자에게 특히 좋다. 값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귀기차 차 귀기차 20g에 물 400cc를 넣고 강한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 달여 수시로 마신다. 귀기차는 독이 없어 장기간 사용하면 할수록 몸에 좋다. 오랫동안 마시면 인체의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해 오래 묵은 질병을 고쳐준다.

간장, 비장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 또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도와주면서 체중감량 효과도 느낄 수 있다.

황기 차 황기 8g과 물 400cc를 넣고 끓여 수시로 마신다. 황기는 피부의 모공을 열고 땀의 양을 조절한다. 이뇨 작용을 하여 당뇨병의 치료제로 쓰이는 등 비만증인 사람에게 좋은 재료이다. 또한 전신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고 수분대사를 조절한다.

산사 차 산사 8g과 물 400cc를 넣고 끓여 수시로 마신다. 산사는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며 위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또한 기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어혈과 담을 풀어준다. 따라서 소화기능에 이상이 있으면서 살이 찢어지는 사람이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비만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먹으면 체기가 내려간다.

맥문동 차 맥문동 6g에 물 500cc, 감초 2쪽을 넣고 끓여 마신다. 맥문동은 청량감이 있는 자양제이므로 입과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좋다.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다.

박하 차 박하 8g에 물 400cc, 감초 2쪽을 넣고 끓여 마신다. 박하는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해 땀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박하는 졸음을 없애고 코 막힘을 치료해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도 있다. 그러나 향기가 강하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김태영 <한의학박사>

하반기 도민교육 계획

과 명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 일수	가수 (기)	인원 (명)
의 시 교육	새마을 지도자반	신규 임명자·교육수로 후 3년 경과자	7. 18 7. 19	1월 1월	1 150 1 150
	바르게살기 위원반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	7. 25 7. 26	1월 1월	1 150 1 150
	가족사랑반	결혼 5년 이상 부부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희망하는 부부	8. 2 ~ 8.22	2월	1 30
	자원봉사 지도자반	자원봉사단체임원·회원	8. 29	1월	1 120
	민간단체 실무자반	민간단체실무요원	9. 14	1월	1 60
	중소기업 인력개발반	중소기업 경영인·종사자	10. 8	1월	1 40
	사회복지 종사자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자활후견 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	10. 12	1월	1 90
	재래시장 지도자반	재래시장변영회 임원·시장 상인	10.22~ 10.23	2월	1 40
	주민자치 위원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1. 1, 11.2	1월	2 300
	통·리·반장반	신규 임명자	11. 13	1월	1 200
영 농 기 술 교 육	여성결혼 이민자반	도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11. 20	1월	1 100
	수출농업반	수출작물, 반원, 단체 등	7.4~7.6	3월	1 40
	발전농업반	쌀 전업농 및 희망농가	7.12~7.13	2월	1 80
	한우고급육반	한우사육 및 희망농가	9.4~9.5	2월	1 40
	농업정보화반	정보화실천 및 희망농가	9.11~9.12	2월	1 30
	복숭아재배반	복숭아재배 및 희망농가	11.8~11.9	2월	1 50
	배재배반	배 재배 및 희망농가	11.15~11.16	2월	1 40
	포도재배반	포도재배 및 희망농가	11.22~11.23	2월	1 40
	현장 농기계반	단양군 오지마을	7. 10 ~ 7.11	2월	1 20
	농기 계 출 련	콤바인·트랙터보유자	9.6 ~ 9.7	2월	1 30
농 기 계 출 련	학생 농기계반	도내 농업계 고교재학생 (제한)	9. 18 ~ 9.20	3월	1 20
	기계화 영농반	상반기 기계화영농농사반 이수자	11.26 ~ 11.30	2주	1 40

교육신청 및 상담문의

• 도 : 충청북도지치연수원 도민연수과

☎ 043)220-5282~5/220-5292~7

• 시·군 : 도민교육담당부서 • 읍·면 : 총무 및 산업담당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loti.cb21.net>

의원동정



◀ 정운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6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아름다운 가게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6월 9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청주시민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6월 15일 청원군 강외면에서 열린 제8회 강의(오송)바이오 농산물 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규원 의원
(옥천 제1선거구)

6월 15일 충청북도의회 매향관 대책위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지역현안 협의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6월 24일 대전광역시에서 실시된 제1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충북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6월 28일 청원군민회관에서 실시된 자유총연맹 청원지부 창립총회 주관 및 활성화 논의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6월 14일~15일 전국시·도 공무원 체육대회에 출전(축구), 화합을 도모하고 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 김병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6월 1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실시된 재경청 주인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6월 23일 청주남성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청주보훈지청 주최 6.25 참전용사 초청 위로만찬회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6월 24일 음성군 대소면에서 실시된 대소면민 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 현안사항 청취



◀ 강태원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6월 15일 충북대학교 개신관에서 실시된 '07년 한국부패학회 하계 학술 세미나에 참석, 토론 및 관계자 격려



◀ 연만홍 의원
(증평 제2선거구)

6월 16일 장마기를 앞두고 증평지역 일원의 주요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 격려 및 주민 의견수렴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6월 23일 옥천군 이원면 이원중학교에서 실시된 이원중학교 동창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심홍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6월 23일 충주시 일원에서 실시된 충주MBC 배 충북생활체육축구대회에 참석, 선수 및 관계자 격려



◀ 최광옥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6월 28일 충북도청 대회실에서 실시된 여성포럼 전체회의에 참석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6월 25일~29일 단양군 일원의 수해복구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 격려

〈말뚝이 세상말이〉

군맹평상(群盲評象)

과 국세진단

사물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에 대한 편견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한다. 이른바 군맹평상(群盲評象) 또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다. 이는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의 사자후보살품(獅子吼菩薩品)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나라 왕이, 하루는 코끼리를 소경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대신은 코끼리를 끌어내어 소경들에게 만져보게 했다. 왕은 소경들에게 코끼리의 모양을 아느냐고 물었다.

상아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무처럼 길쭉합니다.', 귀를 만진 소경은 '키(箕) 같습니다.', 머리를 만진 소경은 '돌 같습니다.', 코를 만진 소경은 '절구 공이 같습니다.'……

소경들마다 코끼리를 만져 본 부분이

달랐으므로 대답도 역시 제각각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 주었다.

'이 소경들은 코끼리의 몸체에 대해 (바르게)말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틀린)것도 아니다. 이들이 말한 코끼리의 갖가지 양상이 코끼리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 따로 코끼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코끼리는 곧 불성(佛性)을 비유하는 것이요, 소경은 중생(衆生)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중생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 불성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그것이 불성 자체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 따로 불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선문(禪問) 선답(禪答)인지라 중생들의 귀로는 역시 이해가 어렵지만, 불성을 어떤 고정관념에 묶인, 닫힌 생각으로 파악하려함을 경계하는 뜻인 듯싶다. 불성의 이해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요 쉬운 것도 아니라는 것, 마치 사이비가 만연하는 세상을 풍자하는 코미디, '갈기道'를 연상케 하는 문답이다.

'명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국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듣고 보면 별 뜻이 없는 듯싶은 데도 방정객이나 시정자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 모호한 채, 혼재하는 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게 찌르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과 거짓의 혼재, 그 구별이 애매한 가운데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모순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소경들이 이해한 코끼리의 모양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 판단은 어렵다. 코끼리(상아)가 무처럼 길쭉하다는 것은 일면 부분적으로 참이지만, 그렇다고 소경들이 제각기 파악한 부분들을 조합한다고 코끼리의 참모습이 바르게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체를 조망(眺望)하지 않는 부분 조명(照明)만으로는 사물의 실체나 사안의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심오한 불성의 이해를 위한 비유로 인용 되었지만, 세간에 회자되는 뜻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과오, 편견과 단견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오류를 경계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약들이 겹가지를 달고 줄줄이 이어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공약들이 우리의 국정(國情)과 국세(國勢)를 정확히 조망,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마련 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현실진단 위에 세워진 공약이라면 그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용성이 보장되지는 지난한 일이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화려한 수사(修辭)로 끝날 공약(空約)이 될 게 뻔하고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술에 불과할 뿐이다.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국세(國勢) 전반에 대한 진단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내고, 지금쯤은 국정(國政)의 조감도가 완성돼 있어야 할 것이다. 시어미 몰래 뜨거운 팔죽 삼키는 매느리처럼 허겁지겁 마련하는 공약은 애초부터 신뢰를 보낼 것이 못된다. 그런데도, 수권을 꿈꾸는 정당, 대통령을 꿈꾸는 예비후보들은 공약의 흥보가 아닌, 도덕성 검증과 놓고 발목걸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도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망한 공약으로 권좌에 오른 대통령이 '군맹평상'으로 국정을 농단하면, 그 고통을 또 어이 견뎌낼꼬? 유권자들이 저어하는 바다.

안수길(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